# 마농의 마을, 대정

대정읍은 제주에서 대표적인 마늘 산지이다. 천연 지하암반수로 재배하는 대정 마늘은 제주의 청정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대정의 브랜드인 대정암반수마농을 알리려는 다양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림연태

**암반수마농로**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710–3 ~ 대정읍 무릉리 1157–1(약 5.5km)

**영락중동로** |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88–32 ~ 대정읍 영락리 992–1(약 0.5km)

**영락사독로** |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41–11 ~ 대정읍 영락리 228–1(약 1.6km)

**전세비로** |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567 ~ 대정읍 영락리 815–3(약 1.2km)

**일과로**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18 ~ 대정읍 동일리 2440–2(약 0.8km)

**동일하모로**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87–1 ~ 대정읍 상모리 3732–9(약 2.4km)

**일과대수로**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338–5 ~ 대정읍 일과리 849–4(약 0.7km)

**서림중앙로**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72–1 ~ 대정읍 동일리 278–5(약 2.5km)

## 암반수마농로 | 대정암반수마농

동일리 해안에서 시작해 무릉리의 중산간서로와 연결되는 **암반수마농로**는 제주도내 마늘 주산지인 대정읍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마농은 마늘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대정 지역은 제주도내 마늘 생산량의 60%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청정자연에서 솟아나는 지하암반수를 이용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대정암반수마농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대정 마늘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마늘밭

2002년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선정한 적이 있다.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하는데 장수의 마을로 유명한 그리스와 오키나와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선정한 것이다. 마늘은 항균효과가 뛰어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 토마토와 시금치 등과 더불어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대정 마늘은 이런 마늘의 효능에다 천연암반수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봄이 되면 대정 지역은 구석구석 밭들을 가득 채운 마늘의 모습이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푸른 잎으로 뒤덮인 들판과 오름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내는 듯하다.

## 영락중동로/영락사동로 | 영락리

영락리에는 독고동과 상동, 중동, 하동 등 4개의 마을이 있는데 **영락중동로**는 그 중 섬반질 일대의 중동을 지나는 마을길이다. 섬반질은 영락리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물이다. 식수는 물론 목욕을 할 때나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매립이 된 상태이다. 무릉리 남쪽에 위치한 영락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말과 흑우를 키우던 모동장이란 목장이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목장 주변에 모여들었고, 밭을 일구고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한다. 영락리(永樂里)라는 이름은 이웃의 무릉리와 도원리가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자 그에 걸맞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길이 즐거운 곳'으로 풀이한다. **영락중동로**와 이어지는 **영락사독로**는 영락4통과 독고동을 연결하는 길이다. 독고동은 독고못 또는 돗구못이라 불리던 연못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돼지의 귀처럼 생긴 동산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에서 돗귀물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 전세비로 | 돈두미오름

노을해안로에서 일주서로로 이어지는 **전세비로**는 이 지역의 옛 지명인 전세비를 반영한 이름이다. 영락리 바닷가의 지형이 쥐와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전세비[前鼠伊]라고 불렸다고 한다. 전세비로를 따라 일주서로로 향하다보면 돈두미오름이 나온다. 돈대미라고도 불리는 이 오름은 주변 보다 조금 높은 평평한 땅을 의미하는 돈대(墩臺)라는 말에 산을 의미하는 '미'가 결합되면서 돈대미라 한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돈두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름이기보다는 약간 높은 구릉지대처럼 보이는 돈두미오름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산기슭에 밭을 조성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 일과로/동일하모로 | 일과리와 동일리

암반수마농로 동쪽에는 일과리의 중심도로인 **일과로**를 만날 수 있다. 일과리는 모슬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날외'(日果)라고 불렀다. 일과리의 북동쪽에 있는 신평리를 웃날외, 동쪽에 있는 동일리를 동날외로 불렀던 것을 보면 날외라는 지명은 이 주변의 상당한 넓은 지역을 포괄하던 의미였던 것 같다. 예전에 일과리에는 아주 부자가 살았었다고 전해온다. 이씨 성을 가진 부자는 백 마리 소에 백 마리 말을 열 명의 테우리들을 고용해서 길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가축들이 물을 먹기 위한 줄이 돈두미오름에서 서림지역까지 이어졌다고 전한다.

**동일하모로**는 동일리 해안가에서 대정서초등학교를 지나 하모리의 모슬포 시가지로 이어지는 길이다. 일과리 동쪽에 있는 동일리는 원래 일과리의 동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동일과'로도 불렸었다. 이후 일과리에서 마을이 분리되면서 동일리가 되었다. 현재 동일리는 동일1리와 동일2리로 나눠져 있고, 동동과 서동, 천미동의 마을들이 있다.

## 일과대수로/서림중앙로 | 대수동과 서림수원지

**일과대수로**는 일과리 대수동의 마을길이다. 일주서로에서 시작된 길은 대수동 마을을 거치고 해안가로 이어져 서림수원지 앞을 지나 일주서로와 다시 만난다. 일과리는 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 중 대수동은 큰 물통이 있던 곳을 말한다. 서림물이라고도 불리던 이 물은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곳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6 · 25전쟁 때 대정에 있던 육군훈련소에 이 물로 식수를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은 서림수원지가 만들어져 있어 제주시 산지물, 한림의 옹포물과 더불어 제주의 3대 수원으로 대정읍 마을의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서림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길인 **서림중앙로**는 마을의 중앙을 지나 일과리 북쪽으로 이어진다. 서림 마을의 해안가에는 왜적의 침입을 알리던 방어시설인 서림연대가 복원되어 있다. 서림해안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면 수월봉까지 이어지는 노을해안로가 시작된다. 이 길에서는 해질녘 바다로 저무는 노을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서림연대